

있다. 二印 富貴家의 貴公子로 特權階級의 人物
釋尊의 人格은 貧窮家의 子弟로 壓迫을 受하는
賤民의 人物인 三大偉人의 赫赫한 人格보다 十倍百
倍가 超勝하지 않겠는가!

아! 團圓한 月光이 재야 모리 明朗하드래도 赫赫
한 日光의 五十萬分之一에 不過한 것이다.

진실로 釋尊은 難行을 能行하고 難忍을 能忍한 古
今 獨步의 絶倫한 人格者라고 肯定치 않나 할래야 아니

五 戒 心 法 (續)

支那 融 脫 居士 原著
木 律 學 人 譯

할수업는 偉大한 人格者이다. 이러한 古今 獨步의 偉大
한 眞覺者이고 眞聖者이심으로써 近三千年 동안 德
萬의 蒼生을 支配하였고 德德萬蒼生의 崇拜할 目標가
되얏는 것이다.
이 힘으로 吾人은 釋尊의 偉大한 人格에 切實히
感服하는 바이다. 이러한 데도 不顯하고 釋尊의 人格
을 시골하게 역어는 나어 뉘동모어! 猛省하라! 참
으로 血淚가 스사 날 地境이다.

第三 其心不婬
무엇을 婬이라 하는가 무릇 色慾에 耽著하는 것이
이른바 婬이라는 것이다.

무릇 몸으로 接觸하여 色慾에 耽著하는 자는 진
실로 身婬이라고 하려니와 有時 平 몸으로는 接觸되지

안드래도 뜻에는 벌써 色慾에 繫戀하며 色慾을
攀緣하며 色慾을 希冀하니 이것을 身婬이라고
는 하지 못하지마는 心婬이라고는 일도 할 수 있다.
心婬은 意識에서 이어나서 或은 그 전에 受觸한 것은
을 追憶도 하며 或은 昔者에 見聞한 바를 貪念하며 或
은 邪友 戲語의 動搖하는 바를 일으며 或은 閑書 小說의

勾引한 바가 되며 或은 平日에 心目을 收攝지 못한 까닭
에 愛情을 한 부로 드날려서 色身을 한 번 보면 迷妄
의 마음이 따라 流轉하며 或은 臨時에 防微杜漸할 줄을
몰라서 娛樂의 마음을 戲曲에 부쳤다가 色慾이引起
되야 邪蕩한 생각을 能히 抑制치 못하니 이러한 種
種事件은 或은 內業을 말미하여 自動하며 或은 外緣
을 말미하여 始生되여서 드되여 清淨한 本來 心地中에
淫念의 垢汚가 이어나 재하니라.

心婬이 이러하면 그 害毒은 어떠한가? 첫째는 邪

淫心이 增長되고 道義心이 退滅해지며. 둘째는 目下
에는 心婬밖에 아니 되지만 轉瞬間에 身婬까지 되며.

셋째는 本來 부의 淫慾이 熾盛한 자이면 心淫이 熾
할수록 淫業이 더욱 增長되야 少壯한 자는 名節이 喪
亡되고 老弱한 자는 身軀를 保存치 못하리라. 넷째는

本來 부의 名譽를 顧惜하야 檢束할 줄 안는 자라도 心
淫이 忽起하고 보면 一念의 邪妄에 昏迷한 바가 되야 蕩
檢離間할 導線이 되여서 一朝에 失足하면 累世가 灰

心케 되나니라. 다섯째는 別서 道를 배워서 發願修
行한 자라도 忽然히 心淫이 이러하면 비록 身惡은

未成하였을지라도 그 마음은 벌써 不淨하야 前에 있

은바 道力, 功用在 모다 魔事로 同歸하고 度人하는 功
德도 모다 詐欺와 같게 되나니 能히 清夜에 懷慚이 있
스며 對衆에 慙愧가 있스랴. 已上에 種種한 過惡이 모
다 一念不慎으로 이 妄因을 심은 것이니 惡業이 既成
하면 모든 苦報을 몰려서 現身에는 干清議·犯王
章·遭苦惱·禍身家하는 報가 있고 身後에는 生惡趣·
墮地獄하는 報가 있나니 各其 造業淺深을 따라서 自作
自受하야 조공도 差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種種 罪惡
의 原因을 推求한 대 하낟도 一念의 心淫에 基因
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

다시 深言할 바가 되면 心淫이 있스면 能히 生死
에 逆流하지 못하며 心淫이 있스면 能히 輪廻를 根斷
하지 못하며 心淫이 있스면 能히 煩惱障을 離치 못하
며 心淫이 있스면 能히 清淨覺을 成就 못한다.

그럼으로 修心하는 道理는 오직 身淫을 戒하는 데
만 잊지 안코 더욱 心淫을 戒하는 것이 貴한 바이다.

心淫을 어떻게 戒할 바가 心淫은 視邪色에서
일어나나니 非禮勿視하여라 心淫은 聽淫聲에서
일어나나니 非禮勿聽하여라 心淫은 觀言에서 일

어나나니 非禮勿言하라 心淫은 邪行에서 일어나

나니 非禮勿動하라 心淫은狂蕩에서 일어나나니 不正한人을遠離하라 心淫은無忌憚에서 일어나나니 不淨한處를勿往하라 이러케하면 邪緣이杜絶되야 心惡의萌動을根由가 없스리라.

마음이不淨하면 마음이清淨하고 마음이清淨하면 따라서德이清淨하고 行이清淨하고 身이清淨하야 已를律할에는 己가正하고 人을治할에는 人이化하고 미루어 政에從하면 政治가清明하고 俗을正하면 風俗이寧靜하리라 十方衆生이 이에根本하야 超凡入聖도하고 이에根本하야 由戒生定도하나니 心淫을근치못하면 比尋種種한行持가잇슬지라도 燕沙作飯에서다르지아나하리라.

四 不 起 忘 念

부엌을뒤편이라하는가? 부엌眞實치 못한言語와利他가업는行動은 모다뒤편이라할수잇나니 言語가眞實치 못한것은 뜻이欺人에잇는故로 妄語가되고 利他가업는行動은 營私아닐이업는故로 妄動이라나니.

眞實치 못한言語는 宜乎히妄語가 되고 利他가업는行動은 宜乎히妄動이 되지는 有時乎 言語에 도나라나지안고 行動에 도나라나지안코도 眞實·不利他할意地가 心中에서默動하나니 이것을 眞實이妄念이 나니.

妄念의 일어나는緣因은 매우複雜하지마는 概括的으로말을하자면 有所欲而有所不欲의 두가지로分할수가잇다 마음에所欲이잇스면 一切愛·取·貪·着·痴迷·顛倒·爭奪·欺誑·殺盜等種種罪業이 발미하야 일어나고 마음에所不欲이잇스면 一切怨·惡·偏私·瞋恨·悻慢·乖戾·欺誑·鬪爭等種種罪惡이 발미하야 일어나나니 이런種種罪惡이 처음에는 不過一念이라 一念을말미하야 意業이생기고 意業을 말미하야 口業이되고 身業이되나니 惡業이일취지已上에는 今生에는惡因을가추고 來生에는 三惡途에떠러지는 惡果가오나니 此現生에발는苦報은이다.

그럼으로 修心하는道理는 不眞實한妄語와 不利他하는妄動만을 戒할에잇지안코 더욱이未語·未動의前에잇는 妄念을敝戒하는것이貴하나니.

妄念을敝戒하자면 어떠한하여야可할까 첫째마음의所欲을放任치말스것이오 둘째 마음의所不欲도放任치말스것이오 셋째 마음의所欲은 맛달히佛智慧로向할스것이오 그方法을 앞에列擧하리라

(一) 마음의所欲을放任치말스것. 財·色·名·食·睡의五慾을가지고말하자 財慾이나거면 十數十寒暑에不過하는 虛假한이름이 轉瞬間에烏有로되다가는것을觀하라 色慾을피롭게하야가며 晝夜間形役이되어서 事하는守錢虜가되고 죽어서는餓鬼隊에떠러질까보나? 이런생각을가지면 財慾의妄念이止息되리라. 色慾(色·聲·香·味·觸의五樂을總括하야色慾이라함)이나거면 맛달히 眼·耳·鼻·舌·身으로 받는바樂이라하는것이 轉瞬間에아데로가는가를觀해보라 受가即是空이다 夢·幻·電·泡가지안온것이업거나 此幻妄의空華를苦戀하야本心에障碍를添加하라? 이런생각을가지면 色慾의妄念이消滅되리라. 名慾으로말하면 好名하는것이好利하는것보다는 清高하다할수잇지만 隱微를窮究하고 實際를磨勘해보면 求名하는者도 利己를爲하지아나함이업스즉 其實은求名과求利가同等한것

이다 그럼으로 名慾이 일어나거면 맛달히虛空과世界가 妄想으로構成되지아나함이업는것을觀하라 世界가無常함으로 衆生이無常하고 衆生이無常함으로 나의色身도無常하야 不久에泡影과가물것이오 이몸도오허려保存치못하거나 내(我)가어데잇스며 나도잇지안키니 眞實(名)이어데잇스라 내가無常함으로 眞實받는者도空하고 衆生이無常함으로 내라는眞實도空하며 衆生과내가모다無常함으로 眞實은바毀譽라는眞實도空한것이라 이러케觀하고 이러케思惟하면 名에可欲할價值가잇는가? 이러케생각하면 名慾의妄念이消滅하리라. 食欲으로말을하면 食이란義類의 包含이至廣하나 世間에서食이라고 眞實하는者一 대개四種이잇스니 一、段食은身食이라고도하는것이오 口腹에주는 飲食等이고 二、觸食은 受食이라고도하는것이오 眼·耳·鼻·舌·身의五根의境界에受樂受苦하는것이오 三、思食은法食이라고도하는것이오 思念·希望等이고 四、識食은心食이라고도하는것이오 各業의薰習을말미하야 阿賴耶識을일우어서 相續不斷하는果報을일으켜 妄心으로하야공 安住케하는것이

라 이네가지를 모다有漏世間食이라 하지마는 여제
 서는衆生의口腹을 채우는 段食에對한食慾만을말하
 자 대저飲食이라는것은 生命을維持하는必需品인
 즉 食慾이라는것이 어찌妄念이되라하겠마는口腹
 의慾이란것은 慾心을낼수 록漸漸히저서 일로는
 微少한듯하나 害됨은巨大하니 만일口腹의慾을
 放縱할入것가드면 처음에는適口한것만을取足하다
 가 그다음에는 사탕으로하야 嗜好를增長케하
 야 殺生惡業을引起할入것이오 그다음에는 同性
 情을昏寐케할入것이오 그다음에는 同性色慾을
 增長케하야 나중에는드되어 永히修道에障礙가될
 入것이니 殺或有時乎淡泊하고저할지라도 積習
 癖이阻礙가되어서 自主할수업게되리니 食慾의害
 가어려한가 學者는맛당히 이러케觀하라 飲食의
 用이라는것은 不過是暫時間을때를기다리는 이
 身軀를維持하는것으로 曠劫다라 먹고쓰되 아모
 空曠淡泊하면 口腹을因하야心性에害하지아니하
 고 小體를因하야大體에累되지아니하리니 이런생
 각을가지면 食慾의妄念이消滅되리라。 睡慾으로말
 하면 睡眠이라는것은 原來에身軀를休息하기爲하
 는必需品이지마는 맛당히節制하야 그形軀를過疲
 케하는데까지는 이르지말게하라 만일睡眠의慾을
 放縱하면 처음에는 비독休息하기로口하지마는
 그다음에는安舒를貪戀하고 懶怠를增加하고 昏沈
 을增益하고하리니 그蔽害를推論할入것가드면能히
 하야 善念이단昏惰의覆蔽가되야 發生할수업
 고 善行이단懶怠의阻滯가되야 成就할入길이업스
 며 昏沈을因하야 더욱懶怠해지고 懶怠를因하야 더
 욱昏沈해지고 懶怠, 昏沈을因하야 더욱睡眠의慾
 이增長하면 그心志가장차 善道와는더욱멀어지고
 惡道와는날로親해지리니 이보다더可懼할入것이무
 었이라? 이런생각을가지면 睡慾의妄念이消滅되
 리라。

(二) 마음의所不欲도放任치말入것, 대저 마음의有
 所不欲이라는것은 가령此人或此事에對하야 마음
 에嫌惡를낸다하면 임의此人此事에嫌惡한지마 그
 다홍에는此人此事보다更勝한 彼人或彼事에는貪愛
 하리니 그럼으로 有所不欲의 마음이 即是有所欲
 의 마음이라 即是愛染·即是貪著·即是虛妄分別·
 即是不平等·即是顛倒見·即是不眞實·即是不利他

이니 即是모다妄念이니라。

(三) 心所欲이란모다佛智慧로向케할入것, 心所欲
 을모다佛智慧에맛도록하면 佛智慧에違背되는것은
 모다心所不欲이라 대개凡夫로서는 能히無念될
 수가업는려인즉 眞의財·色·名·食·睡의五欲의
 妄念이업게되면 이念을어데로向하야住할까 그럼
 으로佛智慧로此念을상을入것이니 佛智慧라는것은
 무엇이나 五欲에着하지아니하며 乃至禪定·人
 天福報·二乘涅槃에까지도着하지아니하고 오죽如
 來의神通秘密藏에證入하기만을求하야 無上正等正
 覺을얻는것이냐 佛智慧로念을상으면 佛智慧를求
 得하는것이 마음所慾이되기때문에 그反面에는惡
 法·小法·外道法·邪見法·무릇佛智慧에違背되는
 것은 모다心所不欲되리니 진실로佛智慧가心所欲
 이되고 佛智慧가心所不欲이된다하면 念念
 이正念이라 正念이常住하면 妄念은일어날바가업
 스티라。

第五 不飲滴酒

무엇을 술(酒)이라하느냐 무릇刺激·暴烈等性

佛敎第四十五講

質을含有한飲料는 모다술이니라。 飲酒의害는 다

말할수업거니와 傷身하기심고 敗德하기심고 誤
 事하기심고 釀禍하기심은것이니 世俗禮法中에서
 도 지이道德에 밝은者는 過失로指口하지아니함이
 업스니 害道의最甚한者만을말하리라 其一은亂心
 性이니 清明한者가昏沈으로變하고 柔和한者가暴
 躁로變하고 條理있는者가錯亂해지고 從容한者
 가顛倒되고 寂默한者가喧囂하여서 向來에다른
 罪惡을짓지아니하야 可히佛道에들어갈만한사람
 으로도 이한가지過邊固하야 如來의妙明淸淨의
 域에自絶케되나니 어찌痛惜한事가아니랴。 其二는
 失定功이니 禪定하는者가 如法修行하야 毗舍遮
 步가있다가고 飲酒하는故로 或은沈하야昏寐에빠
 지고 或은浮하야散亂에호르고 一飲에도變象이
 라나고 屢飲하면前功이盡棄되나나나。 其三은喪功
 德이니 前에修習한不殺·不盜·不淫·不妄의모든
 功德이 一朝一夕에 술의所誤가되어서 往往에破
 戒가되야 淸淨한功德에 闕漏가생기게되나니 술의
 害毒이 어찌猛烈치아니하랴。

그럼으로 修心하는道理는 應當히 不飲酒로써

戒를 삼을 사람이요 不飲酒酒로써戒를 삼을 지니라.
 만일 滴酒도 不飲하면 本來清淨한 如來藏心이 容
 易하게開發顯露할 것이요 滴酒도 不飲하면 修習한
 功德이 散亂喪失하지 아니할 것이요 滴酒도 不飲하면
 亂을 徹漸에 防杜하지 아니하여 中酒藥功하랴 滴
 酒도 不飲하면 人에 模範을 示하리랴
 以上 殺·盜·淫·妄·酒五戒에 應戒할 理由와 心
 戒할 方法은 印의 上述와 같거니와 어떠한 戒法에야
 能히 已上 모든 戒法을 了解하는 者로 하야 操持 不捨
 하야 戒行이 精純케 할가 孔敎의 修身에는 三省을
 貴케 하고 摩西의 十誡에도 祈禱를 重케 하니 眞
 실로 默印함이 없스면 마음에 深入치 아니하고 時習
 치 아니하면 所持를 일키 십나니 그럼으로 學者들은
 己上五戒에 甘마다 隨時隨處에 默默提起하야 하

生活과 佛敎

無窮 金 震 培

五、宗敎와 教育과의 相違

宗敎와 教育과의 相違點은 後者는 人類의 智識을

중대 反하야 前者는 사람의 戒律을 遵다 即智識을 遵
다 함은 먼저 말한 바와 가치 科學을 가르침이요 眞

을 遵다 함은 佛敎에서 解脫을 遵다 함이다 解脫에 對
 하여 좀더 자세히 印度「요가」(योग)의 總論은 上卷 釋
 論(譯註)學派의 說에 依하면 一切二邊을 遠離하고
 順逆境에 不轉하면 이것이 解脫의 人이다
 또 平等의 智眼을 열어 널리 一切衆生을 愛하고 精
 神을 統一하는 者는 解脫의 人이다
 即吾人들은 成佛解脫이 된다는 堅固한 信仰만 있
 스면 如何한 境遇에 있슬지라도 조금도 부끄러워하
 고 겁내일 必要가 없다. 他人의 毀譽褒貶를 顧慮함은
 自己現在만을 생각함으로 쓰다. 一行爲가 一時에는 世
 上에서 非難을 받는다 할지라도 將來에는 반듯이 社
 會公共利益이 될 時機가 있스리라 하는 確信이 있다가면
 王永久한 確信力이 임다 할지라도 世上에 利益을 줄이
 라는 自信이 있다가면 조금도 毀譽褒貶를 생각할 必要
 가 없는 줄로 생각한다. 우리 人類는 恒常에 生을 志願
 하고 死를 恐怖한다. 그러나 먼저 도말한 바와 나
 와가 후생자를 가전사함은 아직 因果理法에 昧한 사람
 이라고 하나 할 수 없다. 우리 佛의 本性은 永久로 導滅亡
 함이 아니다. 일로는 그러면 生死輪廻에 對하야 引用코
 저한다.

印度의 「베이다」時代에는 生死輪廻思想이 아직 成
 立이 아니 되었었다. 그럼으로 同時代에서는 人類의 生
 死는 但只一回만 있다고 思惟하고 神의 長生을 冀
 望하고 輪廻를 解脫할 希願은 要求치 아니하였었다. 善
 人은 死後「야마」(Yama) 國(譯)에 依하야 天國에 引導
 되야 長生不死의 享樂을 받는다 고 할에 不過하였었다.
 (印度宗敎文學綱要二二頁)

靈魂轉生說의 萌芽는 「우파수파」에서 發生되야 後
 에 또 이에 附屬說明을 한 것이 「우파니샷」이다. 이
 것은 哲學的 思索을 爲한 不少한 「우파니샷」의 年
 代로 말하면 「마크쓰·유·델」은 大略西紀前七百年
 이라고 한다. (마크쓰·유·델 印度六派哲學四頁)
 그런 바 輪廻轉生說의 濫觴은 最初에 「사라피다」에
 서 爲始한 것인바 所謂 正智見을 가지고 犧牲을 神의
 代價獻하는 者는 死後不死의 生命을 받고 不然한 者
 는 死後 幽界에 生하야 復死한다. 復生하야 復死된다.
 이와 가치 生死相續한다고 하였다. 「우파니샷」은
 此說을 받아 가지고 死後 顯界에 再生한다고 力說하였었다
 (마크쓰·델 梵文學史二二四頁)

이렇므로 우리 佛의 眞我는 不生不滅하며 肉身은 四